

대략 분류하면 천지간 사물에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것이 “異”이고 그 중 작은 것이 “災”이다. “재”가 통상 먼저 이르고 “이”가 뒤따른다. “재”란 하늘의 견책이고 “이”란 하늘의 위협이다. 견책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위협을 하여 두렵게 한다. … 災異의 근원은 전부 국가의 실정에서 생긴다. 국가의 실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늘은 재해(災害)를 내려 그것을 견고(謹告: 꾸짖어 알려줌)한다. 견고했는데도 변경할 줄 모르면 괴이(怪異)를 보여 깜짝 놀라게 한다. 깜짝 놀라게 했는데도 아직 경외할 줄 모르면 그 때는 재난이 닥친다.<sup>39)</sup>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다. 천지의 陰氣가 일어나면 사람의 음기도 그에 상응하여 일어나고, 반대로 사람의 음기가 일어나면 천지의 음기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여 일어나는데, 이 도는 하나이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비를 내리게 하려면 음기를 동요시켜 음기를 일으키며, 비를 그치게 하려면 양기를 동요시켜 양기를 일으킨다. … 음양의 氣만이 그 類에 따라 불러오거나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과 복(禍福) 같은 것의 발생 원리 역시 같은 이치를 따른다. 어떤 것이든 항상 자기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물이 그 類에 따라 應하여 촉발되는 것이다.<sup>40)</sup>

형벌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면 요상한 기운이 생긴다. 아래에서 요상한 기운이 쌓이면 위로 원망과 증오가 모인다. 상하가 불화하게 되면 음양이 꼬이고 어그러지게 되어 재앙(妖孽: 불길한 징조)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재이(災異)가 일어나게 된다.<sup>41)</sup>

- 
- 39) 其大略之類，天地之物，有不常之變者，謂之異；所者謂之災。災常先至而異乃隨之者，天之譴也；異者，天之威也。譴之而不知，乃畏之以威。……凡災異之本，盡生於之失。國家之失，乃始萌芽，而天出災害以譴告之。譴告之而不知變，乃見怪異以驚駭驚駭之尚不知畏恐，其殃咎乃至（『춘추번로』「必仁且智」）。
- 40) 天有陰陽，人亦有陰陽。天地之陰氣起，而人之陰氣應之而起。人之陰氣起，而天地之氣亦宜應之而起。其道一也。明於此者，欲致雨則動陰以起陰；欲止雨則動陽以起陽。非獨陰陽之氣可以類進退也，雖不祥禍福所從生，亦由是也。無非己先起之，而物以類之而動者也（『춘추번로』「同類相同」）。
- 41) 刑罰不中，則生邪氣。邪氣積於下，怨惡畜於上。上下不和，則陰陽繆戾而妖孽生矣。災異所緣而起也（『漢書』「동중서전」）。

“인간사의 잘잘못에 따라 하늘이 회노의 응답을 한다”는 동중서의 이 주장은, 피상적으로는 매우 몽매한 수준의 인식 상태를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이론을 창출한 동중서의 철학적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즉 그는 진시황 몰락 직후에 출생했는데, 전제왕정 체제하에서는 진시황같은 無所不爲의 폭군이 계속해서 출현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 그러므로 동중서의 철학적 관심은 전제군주의 권력에 어떻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예컨대 맹자는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임금이 아니니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침으로써 전제군주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제시했으나 그런 道義적인 견책만으로는 진시황의 경우에 보듯이 실제로 전혀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동중서에게는 보다 유효하고 설득력 있게 임금의 행위를 제약할 어떤 이론의 구성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도출된 것이 바로 天人感應에 기초한 災異論이었다.

### 3.2 정치 이념으로서의 재이론

이 災異論은 그후 수천년간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나 조선을 막론하고,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是非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론 도구로 되었다. 따라서 과학적 발전(발전)에 의해(예컨대 日蝕의 정확한 예측) 災異論의 허구성이 입증된 이후에도 신하로서 학자들은 그 이론의 주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sup>42)</sup> 성리학적 개념을 빌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조선시대 정치가들의 災異論 관련 진술을 분석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의 숨은 의도를 읽어야지,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42) 주자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식은 규칙적이어서 미리 수학적 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일어나려던 일식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그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재이론에는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학자 신하들 사이에 재이론의 진실성 여부를 문제삼는 발언은 일종의 금기(터부)로 여겨져 왔던 것 같다.

발언 당사자의 신념 내지 사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제 조선 성리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의 「천도책(天道策)」<sup>43)</sup>을 분석해 봄으로써 재이론에 내포된 정치 이념과 현실 문제 인식을 고찰해 보자. 우선 「천도책」의 서론을 보자.

萬化의 근본은 陰陽 하나일 뿐이다. 氣는 動하면 陽이 되고 靜하면 陰이 되는데, 한번은 動하고 한번은 靜하는 것은 氣이고, 動하고 靜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 만물은 陰陽의 상호 작용에서 생긴 것들이니, 日月星辰이 하늘에 걸려있고 雨雪霜露가 땅에 내리고 風雲雷霆이 일어나는 등은 모두 氣의 작용이고, 그것들이 저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다 理이다.

陰陽 二氣가 조화를 이루면 이런 모든 氣의 현상들이 법도에 맞고 순조롭게 되는데 이 경우가 理의 常道(常)이다. 二氣가 조화하지 못하면 日月星辰의 운행은 법도를 잃고 雨雪霜露는 그 시기를 상실하고 風雲雷霆이 乖氣로부터 생기는데 이 경우가 理의 변괴(變)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사람의 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氣도 순조롭게 되는 법이니, 理의 상도와 理의 변괴를 어떻게 천도의 뜻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사람의 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氣도 순조롭게 된다”는 구절만 보더라도 위의 내용은 천도와 인간사는 상호 감응한다는 “천인감응”의 이론을 주장하는 논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율곡은 성리학적인 이기 개념을 빌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동증서와 다를 뿐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몇 세부 질문과 그에 대한 율곡의 대답을 살펴보자.

㉞ “해와 달이 각각 들쭉 뜨기도 하고 때로 일식·월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㉞ “해는 임금이 상이요 달은 신하의 상이다. 달이 미미해지는 것(월식)은 그래도 큰 변고가 아니지만 해가 미미해지는 것(일식)은 음이 성하고 양이 미미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는 상이다. 또 두 해가 뜨고

43) 이이가 23세에 별시(別試)에 장원했을 때의 시험문제(試問)와 그 답안(이른바 對策)으로 구성된 글.

두 달이 함께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한 변고로 피기(乖氣)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이러한 災異의 발생은 덕을 닦은 治世에는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쇠락한 정치의 소산이었으니 천도와 인간사(天人)의 상호 관련성을 알 수 있다. 하늘의 별들의 운행 현상은 모두 元氣의 작용 아닌 것이 없다.”

- ㉞ “景星(瑞星)은 언제 보이고, 혜성은 어느 시대에 생기는가?”
- ㉟ “경성은 반드시 태평성세에 나타나고 혜성은 반드시 衰世에 나타난다. 전자의 사례는 요순시대, 후자의 사례는 춘추시대에 있었다. 그밖에도 그 예는 무수하다.”
- ㊱ “어떤 때는 미풍이 불고 어떤 때는 폭풍이 닥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㊲ “잘 다스려진 세상에서는 음양의 기가 잘 퍼져 맺히지 않았다. 따라서 그 발산은 반드시 온화했기 때문에 나뭇가지조차 울리지 않았다. 세상의 도가 쇠해지면 음양의 기가 막혀 펼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발산은 격렬할 수밖에 없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날린다. 주(周)나라 成王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자 大風이 베틀을 쓰러뜨렸고, 周公(성왕을 보필한 현명한 재상)이 수년간 덕화(德化)를 펼치자 바다에 풍파가 일지 않았는데, 氣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역시 人事로 말미암았었던 것이다.”
- ㊳ “구름은 어디서 생기며 五色 구름은 무엇에 감응한 결과인가?”
- ㊴ “山川 등의 氣가 상승하여 구름이 되니 아름다운 징조와 불길한 징조를 거기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옛 聖王은 영대(靈臺)를 만들어 구름의 색과 형체를 살펴서 길흉의 조짐을 관찰했다. 대개 아름다운 징조의 구름과 불길한 징조의 구름이 생기는 것은 그것들이 생기기 전에 그 전조(前兆)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구름이 희면 유랑하는 백성이 있다는 증거이고, 구름이 푸르면 곡식 해충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검은 구름은 水災의 조짐, 붉은 구름은 전쟁의 징조, 노란 구름은 풍년의 상서로운 조짐이다. 이 모두는 氣가 먼저 나타낸 것들이다.”
- ㊵ “누런 안개가 사방을 덮고 짙은 안개가 대낮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㊶ “(前漢 末) 왕망(王莽)이 임금자리를 찬탈하자 누런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고 (당 현종이 정사를 어지럽히자 짙은 안개가 대낮을 어둡게 했다. 또 유방이 포위되고 충신 문천상이 죽임을 당하자 하늘은 흐리고 흙비가 내렸다.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거나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했을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 ㉞ “따뜻한 강남 땅에 6월에 서리가 내린 것은 혹심한 변괴이다. 당시의 일에 대해 아는가?”
- ㉟ “음기가 너무 심하면 서리가 때에 어긋나게 내린다. 측천무후가 등극하자 음양의 위치가 바뀌어 따뜻한 땅에 6월 서리가 내렸는데, 그것은 온 천지에 온통 사나운 음기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 ㊱ “신농씨(고대 전설적 임금) 때는 비를 바라면 비가 왔고 태평성세에는 1년에 36번의 비가 내렸다. 그렇다면 天道에도 것처럼 사사로운 배품이 있다는 말인가?”
- ㊲ “양이 극성하면 가물고 음이 극성하면 수재가 드니, 음양이 조화한 연후에 비오는 날과 따뜻한 날이 시기에 맞게 된다. 따라서 신농 같은 성인이 순박한 세상을 다스릴 때는 비가 개이라 하면 비가 개였고 비가 오라 하면 비가 온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었다.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천지가 서로 상통하니, 5일에 한번 바람이 불고 10일에 한번 비가 오는 것이 常道(常)였다. 그러한 덕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감응이 있는 것인바, 천도에 어찌 사사로운 배품이 있겠는가?”

“일식은 신하가 임금을 반역한 것을 상징한다”, “구름이 희면 유량하는 백성이 있고, 구름이 푸르면 곡식 해충이 있다”, “누런 안개는 찬탈의 증거이다”는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의 내용은 철두철미 재이론에 대해 묻고 대답한 것들이다.

「천도책」의 試問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만물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단순히 天氣가 어긋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人事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식·월식이 없게 할 수 있으며, 星辰이 궤도를 상실치 않으며 우레에서 벼락이 생기지 않고 서리가 여름에 내리지 않으며, 눈과 우박이 재앙이 되지 않으며, 폭풍과 음우(淫雨: 작물 해치는 굶은 비) 없이, 모두가 각각의 질서에 따르며 마침내 천지가 제 자리에 서고(位天地) 만물이 잘 자랄(育萬物)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한 道는 어디에서 말미암는 것인가?

이 질문의 의도는 결코 일식·월식을 저지하고 여름에 서리 따위가 내리지 않게 할 자연과학적 방책을 제시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 숨은 의도는, <天道에 발생하는 異常 현상은 인간사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유교의 전통적 정치이론인 <災異論의 보편타당성을 논술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질문

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율곡은 이렇게 대답했다.

은 우주는 똑같은 하나의 氣가 運化하여 만가지 현상이 된 것이니, 천지의 만상은, 나누어 보면 각각의 氣이지만, 합하여 보면 동일한 氣이다. … 따라서 임금이 그 마음을 바로잡게 되면 조정이 바로잡혀지고, 조정이 바로잡히면 사방이 바로잡혀지고, 사방이 바로잡혀지면, 天地의 氣 또한 바르게 된다.

듣건대, ‘마음이 화평하면 몸이 화평하고 몸이 화평하면 氣가 화평해지고 기가 화평하면 천지도 화평하게 감응한다’ 했으니, 천지의 기가 이미 바르다면, 어찌 일식이나 월식이 발생하겠으며, 星辰이 그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생기겠는가? 또 천지의 기가 이미 화평하면 모든 기상현상은 순조롭게 펼쳐져 모든 만물을 생성할 것이니, 임금이 훌륭한 덕목(아름다운 정조의 덕목인 肅·文·哲·謀·聖)을 닦아 위로 天道응한다면 하늘의 날씨도 각각 그 덕목에 상응한 현상을 보임으로써 반응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천지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이 양육되는 것이 어찌 임금 한 사람의 修德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율곡은 천도와 인간사가 동일한 구조와 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天人同類(天人感應의 기본 명제)의 원칙에 입각한 재이론을 성리학적 이론체계 내의 리기 개념을 빌어 설명한 다음, 그 재이론에 근거한 군주의 도덕수양론을 제시함으로써 답안을 끝맺었다.

천인감응적 군주의 修德論은, 『상서』, 『홍범』의 庶徵에서 그 실마리가 제시되어 漢代 동중서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宋代의 성리학자에 의해 성리학적 체계로 재정립된 유교의 정통 정치 이념의 하나로서, 중국은 물론이요,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유교적 정치 이념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그 사실을 율곡의 「천도책」 안에서 새삼스러이 확인할 수 있다.

「천도책」의 답안은, “성왕의 시대에는 비가 개이라 하면 비가 개였고 비가 오라 하면 비가 왔다”는 등등의 표현에서 보여지듯이, 자연과학 사상은 고사하고 현명한 대철학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지극히 유치하고 저급한 이해수준의 발언들<sup>44)</sup>로 채워져 있다. 당시 조선의 자연과학 수준

44) 아무도 율곡 자신의 생각이 것처럼 저급하고 유치하고 원시적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천도책」의 발언 내용은 액면 그대로는 아

은 이미 세종 때에 서울(한양)의 위치에서 일식과 월식이 생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는데도, 45) 율곡은 그런 지식을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의 발언을 하고 있다. 46)

그 이유는 바로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자연관이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따라서 대답도 그에 맞추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천도책」에 서술된 이렇듯 매우 몽매한 이해 수준의 발언들의 이면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점은, 당시 지식인들이 災異論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율곡의 「천도책」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연철학사상에 빚대어 피력한 정치 이념 논문이다. 이 점은 「천도책」이 쓰여진 1558년 당시를 전후로 한 정치적 시대 상황을 보면 분명해진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연산군의 등장으로 무도한 임금의 폭정을 겪었고 그후 임금을 몰아냈고(中宗反正) 또 그 과정에서의 논공행상 시비와 신하들 간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역시 임금에 대한 일종의 반역 행위임)이 치열했었다. 즉 「천도책」이 쓰여진 해로부터 정확히 60년 전의 戊午士禍(1498 연산4년)를 시작으로, 甲子士禍(1504, 연산10년), 己卯士禍(1519, 중종14년) 이어졌고, 13년 전에는 네 번째 사화인 乙巳士禍가 있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관료 선비들이 희생되는 와중에 당시 관직에 진출한 선비치고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틈에 어느 쪽으로 연루되어 희생될 가능성은 다분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시 관료들은 폭

---

무 의미가 없고 그 발언의 목표는 다른 데에 있었으니(정치 이념의 확립), 그 점을 살펴야 한다.

45) 『한국사』8(한길사, 1994), 326쪽; 奎炳機 編著, 『韓國科學史』, 310쪽.

46) 따라서 「천도책」에 대해, “율곡의 자연철학사상” 내지 “우주론적 철학논문” 혹은 “당시 조선시대 학자들의 자연학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서광사, 1995), 43쪽; 김태완, 「율곡의 자연학: 天道策」, 『송실대 논문집』, 참조)로 규정짓는 것은 전혀 핀트가 어긋난 분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장회익은 「조선 성리학의 자연관 — 이이의 『천도책』과 張顯光의 『宇宙說』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천도책」은 “제왕의 도덕적 품성과 인간의 마음가짐이 자연현상 결정의 主要因임을 강조한” 災異論에 치중된 글로 분석했다.

군의 출현을 경계하는 한편 반역적 성향 내지 돌출적 행동 기질의 동료 역시 가장 경계했을 것이다. 이 점은 바로 「천도책」의, “일식의 의미”를 설명한 대답 부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일식은 통상 임금의 失政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율곡은 “일식은 음이 성하고 양이 미미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는 상이다”라고 답함으로써 반역적 성향의 관료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상이변과 축천무후를 연관짓고 있는 것은, 바로 네번째 사화인 乙巳士禍가 어린 明宗이 즉위하자 왕후가 垂簾聽政함으로써 발단된 士禍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강남 땅(南越)에서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기상이변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策問은 굳이 그 의미를 축천무후 치하와 관련시켜 서술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율곡은 “여자가 등극하자 음양의 위치가 바뀌어 천지간에 온통 사나운 음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이변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든 여왕이 악하지는 않았음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선덕여왕의 善政과 治世 등), 일단 궤변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율곡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은 당시의 정치 현실에 직결된 것이었기에 율곡은 그렇게 답했던 것이다.

관리 선발 시험 문제는 국가의 기본 이념이 항상 은연중에 제시되기 마련인데,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 못한 터부와 같았던 재이론의 정치 이념적 면모가 「천도책」에는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폭군의 독재를 견제할 합리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절대군주체제 하에서, 관료 지식인들이 그래도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독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는 災異論밖에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47) 당시 조선 성리학자들은 예컨대 리기(理氣) 심성(心性)의 이론에 있어서는 많은 글을 남겼지만, 유독 “재이론”의 경우만은 오직 임금에게 올리는 글 안에서만 주장했을 뿐, 그 진리성을 논증하는 글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역시 그 이론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만 묵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 점은 “우주를 비롯한 자연계의 여러 측면에 관해 폭 넓게 서술하고 있어서 이 시기 지식계층이 지녔던 자연관을 비교적 잘 대변해 주는”(장회익, 16쪽) 張



재이론은 통상 대표적인 유교의 탁상공론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론처럼 보이는 재이론에도 시대적 제약(48)을 극복해보려는 유학자들의 고충이 깊이 배어 있는, 실용성이 풍부한, 정치 이념이었음이 확인된다.

#### 4. 맺는 말

유학은 항상 출발점도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고 귀결점도 사회 현실이었다. 이는 선진 시대의 공자, 맹자, 순자로부터 현대의 동중서를 거쳐 송대 성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앞에서 동중서를 중심으로 한 현대 유학과 주자를 중심으로 한 송대 성리학이 선진 시대 유학 이후 유학의 가장 큰 두 변용이라고 말했다. 이 점은 다시 말해 동중서나 주자가 현실 문제에 대해 가장 치열한 문제의식과 지극한 열정을 가지고 가장 심각한 태도로 분석하는데 일생을 걸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리학 이론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형이상학 이론으로 여겨지는, 격물론, 귀신론, 재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현실 문제 인식을 고찰했다. 공자 등 선진 시대 학자들이 세워놓은 기본 덕목의 범주를 설명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유학 공부의 전부인 것은 아닐 것이다. 동중서나 주자는 결코 과거의 술어, 과거의 방식, 과거의 유산에만 집착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제일의적인 과제로 삼았던 까닭에, 유학과 전적으로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주위의 학문 체계로부터도 항상 새로운 개념을 차용하고 원용하는 데 주저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선배 유학자들의 이러한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근원적 대안을 제시할

---

顯光의 『우주설』에는 災異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48) 전제 군주체제 하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하고 예측 불허의 돌발 사태 등.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통일 문제, 탈세의 근절과 공평한 납세의 문제, 교육 문제, 언론 권력의 문제, 생명 복제와 환경의 문제 등등이 곧 철학적 문제 인식의 출발점 내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날의 새로운 가치관은 항상 진취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의 여러 문제들을 비롯하여 지극히 우려스럽게만 분석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자본만능주의 경쟁지상주의 등등의 문제들도 올바르게 분석되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모색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정에 있어서 유학적 사유 방식은 그 어떤 학문 이론들 못지 않게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春秋繁露義證』(董仲舒), 蘇興, 中華書局, 北京, 1992.
- 『栗谷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論語譯注』 『孟子譯注』, 楊伯峻, 中華書局, 1980.
- 朱熹, 『朱熹集』(全10冊), 四川教育出版社, 成都, 1996.
- \_\_\_\_\_, 『朱子語類』, 中華書局, 北京, 1994.
- 『性理大全』(孔子文化大全), 胡廣 등 纂修, 山東友誼書社.
- 김대완, 「올곡의 자연학-天道策」, 『송실대 논문집』,
- 박성규, 「대학 격물론 소고-주희를 중심으로-」, 서울대 철학과 석사논문 1998.
-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 민족사, 서울, 2000.
- 이남영, 「東洋의 世界觀과 人間觀-儒家思想과 道家思想의 경우」, 『동아문화』 21, 1983. 11.
- 이상익, 「유가의 경제사상과 유교자본주의론의 타당성 문제」, 『철학』 66, 한국철학회, 2001.
-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서울, 1994.

- 陳淳, 김영민 역, 『北溪字義』, 예문서원, 서울, 1993.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8.
- 허남진, 『儒學派들의 思想的 葛藤과 變遷』, 『韓國思想史大系』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허남진 등 편저, 『한국철학사상연구자료집』 2·3,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1999; 2000.
-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하, 까치, 1999.
- 陳榮捷, 『송명리학의 공과 죄』, 『東吳大學哲學系傳習錄』 第4期, 동오대학출판부, 대만, 1985.
-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광사, 1995.
- 『한국사』 8, 한길사, 서울, 1994.
- 『한국사』 27,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 전상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 全炳機 編著, 『韓國科學史』, 서울.
- 장희익, 『조선 성리학의 자연관 -이이의 『친도책』과 張顯光의 『宇宙說』을 중심으로-』, 『과학과 철학』 3, 통나무, 서울.
- 葛榮晉, 『中國哲學範疇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 姜廣輝, 『理學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4.
- 東景南, 『朱子大傳』, 福建教育出版社, 1992.
- 牙含章·王友三 主編, 『中國無神論史』(상·하),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楊天石, 『朱熹及其哲學』, 中華書局, 北京, 1982.
- 王友三 編著, 『中國無神論史』('99수정본), 上海人民出版社, 1999.
- 李魁平, 『朱熹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4.
- 錢穆, 『朱子新學案』(全5冊), 三民書局, 臺北, 1971.
- 陳來, 『朱子哲學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2000.
- 陳榮捷, 『朱子新探索』, 學生書局, 臺北, 1988.
-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第5冊(三松堂全集 10), 人民出版社, 北京, 1987.
- 侯外慮 等 主編, 『宋明理學史』(상·하), 人民出版社, 1997.

三浦國雄, 『朱子と氣と身體』, 平凡社, 東京, 1997.

Wing-Tsit Chan ed., *Chu Hsi and Neo-Confucianism*, University of Hawaii  
1986.

《中文抄錄》

## 新儒學的現實問題認識

-以格物論·鬼神論·災異論爲主-

許南進 / 朴星奎

近年來，儒學與現實認識方法，非常惹起東西學者的關心。本篇是關於這種主題提出一意見。本篇的主要內容是如下。

在序論，說明先秦時代儒家三聖孔孟荀的重要哲學思想也出發於現實問題，論究現實問題，歸結於現實問題。

在本論，分段兩個部分。第一，說明朱子性理學(新儒學)的現實問題認識。性理的學問方法論的中心是格物致知論。朱子的格物致知論引起後代的紛紛議論。他的格物論是他的哲學思想的核心部分。他的格物論也出發於佛教批判。要批判佛教須要批判佛教的頓悟成佛的學問方法論。從此成立儒學的學問方法論，乃格物致知論。在性理學的鬼神論也，出發於現實批判意識。“鬼神造化之跡也”與“鬼神二氣之良能也”二語，是性理學的鬼神觀的核心。他們說明種種造化現象全體是鬼神之跡所以他們主張佛教與民間所謂鬼神不存在。

第二，說明災異論的政治理念與現實批判。災異論是在絕對君主治下時代的產物。災異論主張政治的興亡盛衰左右於君主的有德與否。在災異論的說明構造下，臣下們可以批判君主的失政。後來科學的事實之發見，證明災異論的主張的虛構性。不過封建社會的中國與朝鮮的性理學的知識人，不廢棄災異論的政治理念。因為他們願望，借災異論的權威而批判君主的獨走。本篇討論朝鮮性理學者栗谷李珣的「天道策」，以說明災異論的政治理念與其中的現實批判意識。

在結論，表明現在學者的觀心。在現實問題認識，儒學的學問方法仍是限重要。